
[기자회견]집회해산과정 수갑, 심지어 수술중에도 수갑을 벗기지 않는 화성동부 경찰서 규탄한다

2008년 10월 6일 오후 7:25

취재요청서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 다산인권센터 /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 /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제목 : [기자회견]집회해산과정 수갑, 심지어 수술중에도 수갑을 벗기지 않는 화성동부경찰서 규탄한다

문의 : 다산인권센터(박진)
일자 : 2008년 10월 7일(화)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지난 10월 1일 오전 10시경 경찰은 태형레미콘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습니다. 과도한 계구(수갑)를 사용하고, 심지어 용역직원에게 다친 노조원의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여성조합원에 대한 성폭행, 용역직원들의 폭력에 대한 묵인 방조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해 우리는 화성동부경찰서의 인권유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2008년 10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화성동부 경찰서 앞

<별첨> 10월 1일 태형레미콘 상황

1. 불법적인 폭력 연행 이었다!

:10월 1일 오전10시경, 모든 집회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병력 100여명이 배치되면서 경찰이 레미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함.

그러던 중, 경찰관1명이 레미콘 차량에 갑자기 올라타더니 차량에 시동을 검. 이를 발견한 전재업 조합원이 '왜 남의 차에 올라타느냐'고 항의 하자 곧바로 사법경찰관 5명 정도가 전재업 조합원을 둘러싸고 연행 함. 이를 발견한 한 조합원이 '전재업 동지가 연행되었다'라고 소리쳤고, 50m정도 떨어져 있던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달려 감. 이후, 무작정 조합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함.

1) 강원규 부위원장 : 공무를 집행하는 현장에서 10여m가량 떨어져있는 장소에서 연행되었고, 연행하기 전 별다른 마찰이 없는 가운데서 경찰관이 표적 연행하였으며, 과정에서 팔을 뒤로하고 수갑을 채움.

2) 전재엽 조합원 : 용역직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마가 찢어져 발안 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현장에서의 119를 통한 응급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목살 당함. 경찰관의 설명으로는 경미한 상처라서 괜찮다고 함. 이후 병원 후송 후 손목에 수갑을 채운채로 수술을 진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 발생. 병원 의사가 수술시에는 쇠붙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경찰관은 수갑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목살 함.

2. 농성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 조합원들이 연행되고 30여분이 흐른뒤, 전경 50여명이 농성장을 둘러싼 가운데 경찰관들이 '위험한 물건을 찾는다'며 막무가내 식 수색을 하기 시작 함. 영장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목살 당하였으며 법조항을 문자, 형사소송법 264조 3항을 들먹임(확인결과 형사소송법 264조 3항은 압수수색과는 무관한 법조항임). 결국 아무런 물품도 발견하지 못함.

3. 수색과정에서 경찰관이 성희롱 저지르다!

=> 압수수색에 항의하다 농성장 밖으로 나오던 여성조합원에게 한 경찰관이 "씨팔 좆 같은 것이" 라는 등의 남성의 성기를 들먹이는 욕설을 여성조합원에게 수차례 함. 이에 여성조합원은 성희롱이다 라고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어린 것에게 경찰은 욕도 못하냐"며 계속하여 조롱을 함. 이후 다른 경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뺌 함.

4. 칼 들고 설쳐대도 용서 받는 자!

=> 당일 새벽 06시경, 회사 측 직원이 노동조합이 걸어놓은 프랑카드를 훼손함. 이를 발견한 차주현 조합원이 이를 제지하자, 사측 직원은 흉기(커터칼)를 휘두르며 위협을 함. 경찰은, 눈앞에서 뻔히 목격을 하고도 증거물에 대한 확보를 하지도 않은 채 이를 제지하던 조합원만을 일방적으로 연행하려 함. 명백히 회사 편들기 식의 공권력의 행사 임. 이후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비로써 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 함.